

서울,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인가?

2009. 1. 12 제29호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인구고령화에 따른 도시정책 변화 필요
- II. 고령친화도시 개발 해외사례
- III. 고령친화적 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

요 약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은 한마디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며,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의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인 생활안정 문제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 취업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이 48%에 달하며, 76%가 취업이나 창업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노인의 17.2%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는 노인은 14%에 불과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공원과 산책로 등 물리적인 도시환경과 교통서비스도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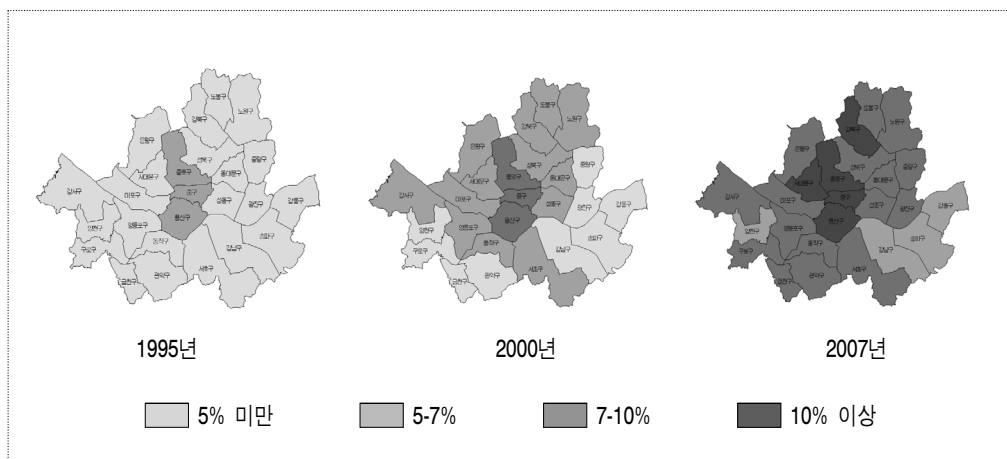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친화도시 건설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AdvantAge Initiative, 캐나다 캘거리시의 A Place to Call Home 등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모델의 개념적 틀과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 세계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야외공간, 주거, 건축, 교통, 사회참여 등 영역별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런던시는 노인전략계획을 통해 노인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은 2005년에 이미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존중받고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정책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의 고령친화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둘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 건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노인 관련 자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I. 인구고령화에 따른 도시정책 변화 필요

2019년 서울은 고령사회로 진입

- 서울은 2005년 고령화사회에서 2019년 고령사회,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1995년 약 43만 명에서 2008년 86만 명으로 거의 2배 증가
 -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 이상인 자치구는 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대부분의 자치구가 7%를 상회하여 고령화사회 기준 7%를 초과
 - 도심지역의 일부 자치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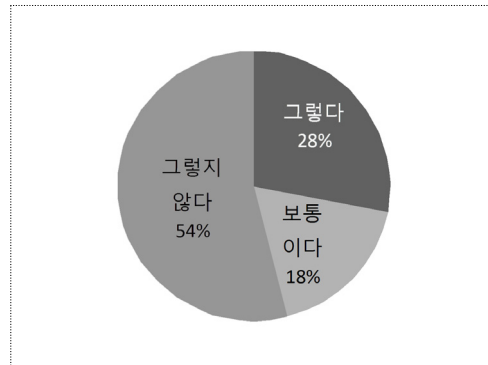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1995-2007

[그림 1]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지역별 분포(1995~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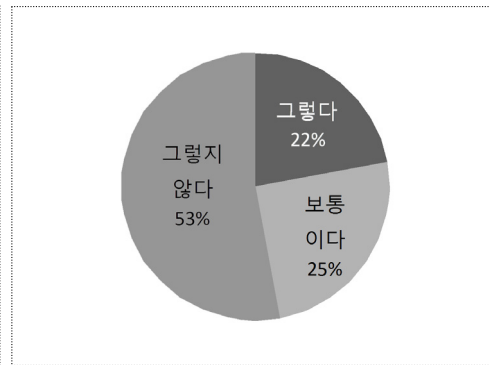
- 2019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
 - 2019년 서울의 고령인구 비율은 14.1%로 고령사회 기준을 초과
 -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게 되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

노인의 경제적인 생활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28%로, 노인의 경제적인 생활안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
-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공공의 지원을 기대하는 노인은 22%에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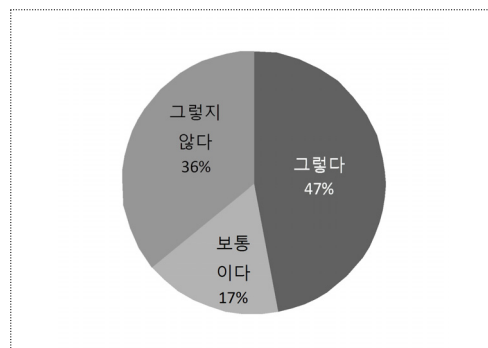


[그림 2]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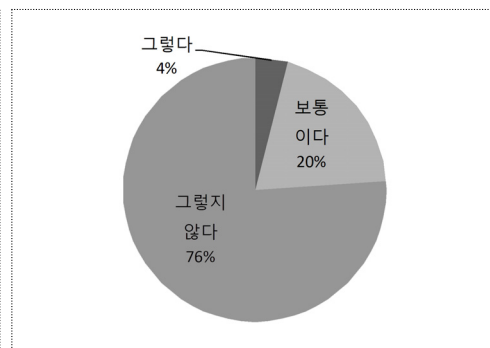


[그림 3]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 노인의 높은 취업욕구에 비해 취업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에 대한 노인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
-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이 47%에 달하고, 대다수의 노인(76%)이 취업·창업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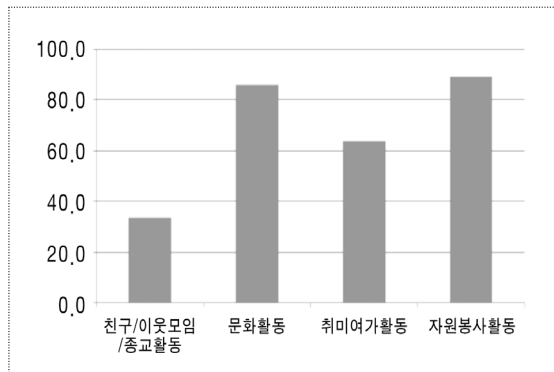


[그림 4] 노인취업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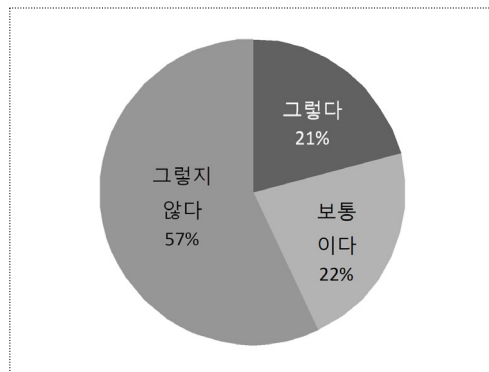


[그림 5] 취업·창업정보 습득의 용이성

-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매우 저조하고 이용가능한 여가·체육시설도 부족
- 노인 대다수가 문화·취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 여가 체육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도 매우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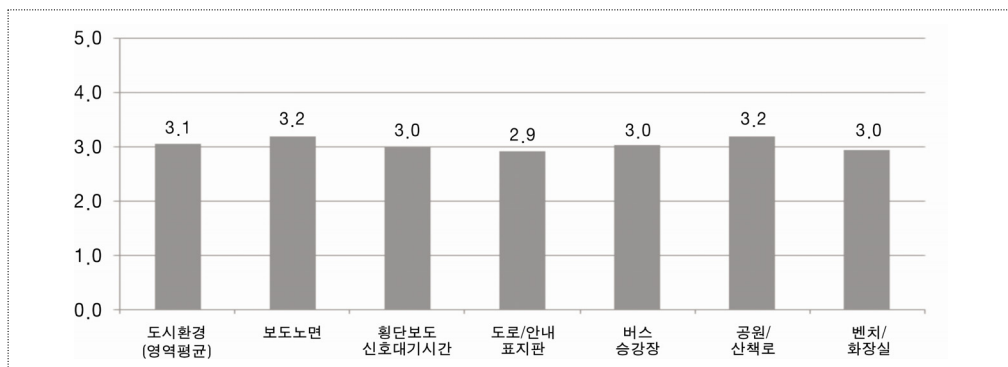
[그림 6] 사회활동 불참비율



[그림 7] 여가체육시설 활용 용이성

고령친화적이지 않은 서울의 도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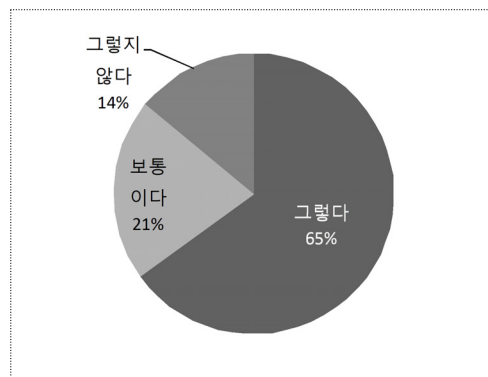
-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노인들의 평가는 '보통' 수준
- 보도노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표지판/안내판, 공원과 산책로 등의 이용에 대한 고령친화성 평가 결과, 대부분 '보통(3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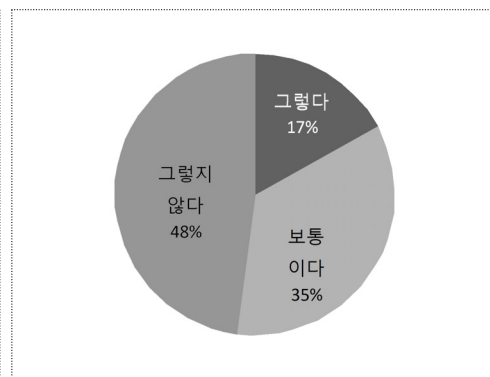
[그림 8] 도시환경의 고령친화성 평가

□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감은 높으나 정보 제공이나 지역이동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취약

-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편리성에 대한 설문결과, 노인의 65%가 긍정적 평가
- 그러나 버스노선이나 시간표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우며 노인을 위한 지역이동서비스(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



[그림 9] 대중교통 이동의 편리성



[그림 10] 대중교통정보 획득의 용이성

고령자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필요

□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노인의 일상적인 의료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건강교육을 통한 예방서비스도 취약

- 노인의 17.2%가 경제적인 이유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건강교육의 기회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3%에 불과

□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고령친화도를 제고할 필요

- 복지서비스 필요 시 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4%에 불과
- 치매·중풍 발병 시 적절한 돌봄을 기대하는 노인은 2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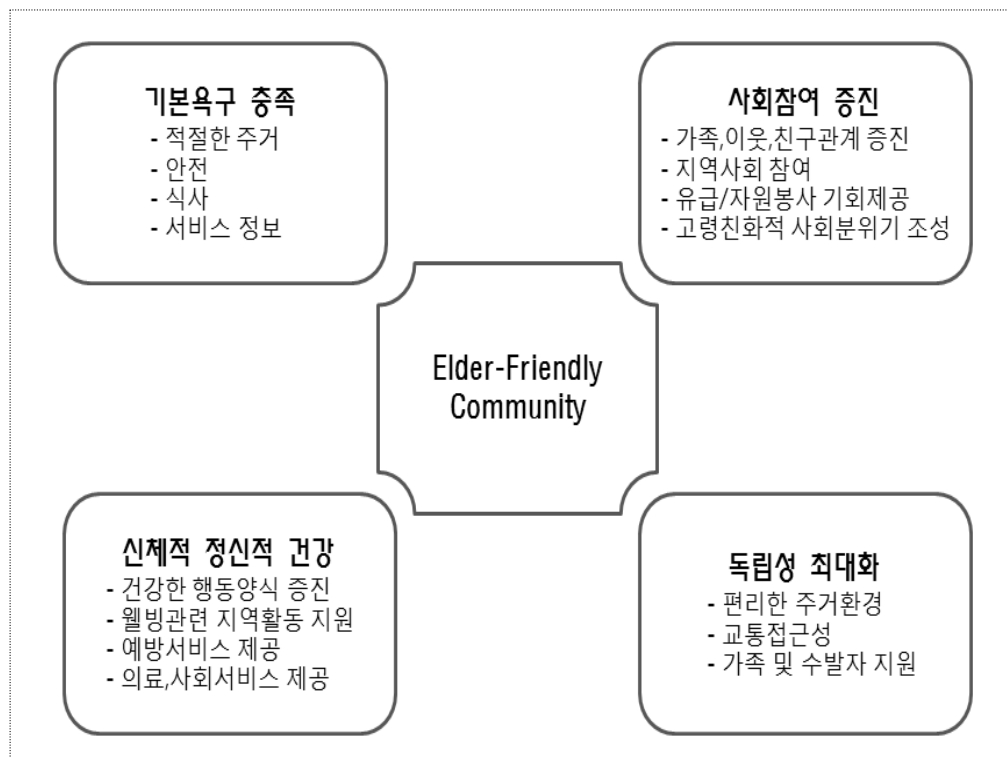
[그림 11] 지원요청 연락처 인지 [그림 12] 치매중풍노인 보호에 대한 안심감

- 요보호·요지원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효율적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

II. 고령친화도시 개발 해외사례

선진국들의 고령친화도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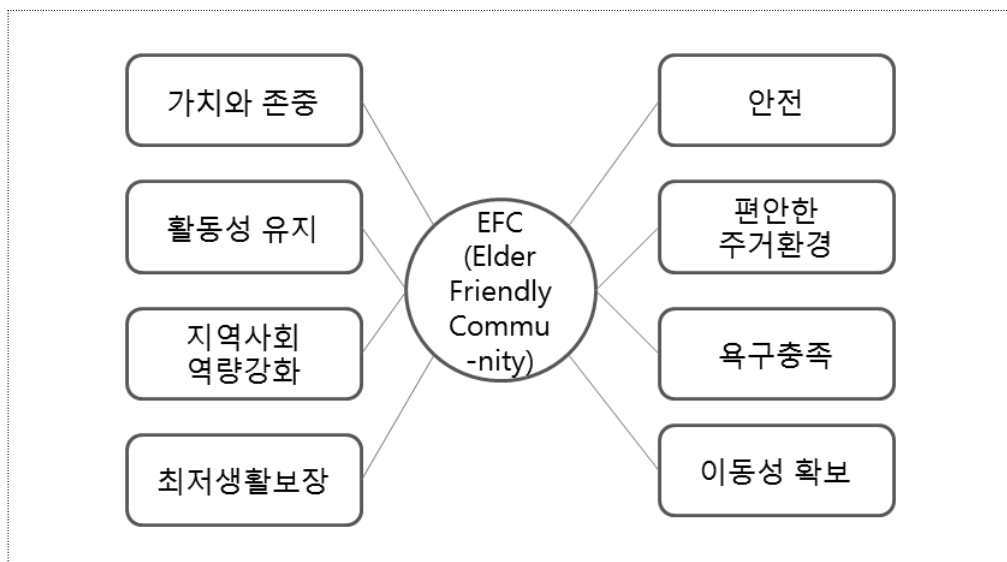
- 미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 'AdvantAge Initiative'를 시행
 - 노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생산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개발 모델을 제시
 - 기본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증진,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최적화와 독립성 최대화를 고령친화 지역의 4대 기본요소로 제시
 - 고령친화성 수준을 점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전국적인 조사 실시



[그림 13] AdvantAge Initiative의 개념적 틀

□ 캐나다 캘거리의 'A Place to Call Home'

- 캘거리 시정부와 지역보건국, 대학의 협력 프로젝트로 '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사회'를 8개 주제영역으로 정의
 - 특히 가치와 존중감 같은 개인적 요인과 노인의 정보 접근성과 같은 지역기반의 요인을 함께 강조
- 노인을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곳을 강조



[그림 14] 캘거리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개념적 틀

□ WHO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매뉴얼인 'Global Age-friendly Cities Guide'를 개발

- 전 세계 35개 도시가 참여한 World-Wide 프로젝트로, 8개 주제영역에 대한 포커스그룹 조사에 기초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개발
 - 수도와 소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 참여로 도시환경의 다양성을 반영

- 8개 영역별로 고령친화도시가 갖추어야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제시
- 8개 기본영역은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통합,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로 구성

WHO의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의 Checklist 사례

- 야외공간과 빌딩 부문 -

- 환경: 도시는 깨끗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수준 악취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 적용
- 녹지와 보도
 - 잘 관리된 녹색공간에 적절한 휴식공간과 화장실, 벤치 등 구비
 - 장애물이 없으며 안전한 노면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보행친화적인 보도 설치
- 야외좌석: 공원, 정류장을 비롯한 공공장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야외좌석이 확보되어 있고 적절하게 관리
- 도로노면
 - 노면은 고르고, 완만하며, 미끄럽지 않고, 휠체어 사용이 용이하게 넓고, 낮은 턱을 유지
 - 보도는 장애물이 없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 도로
 - 적절한 간격으로 횡단보도 설치
 - '교통 섬'(Traffic Island)이나 추월도로, 서행도로와 같은 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 보장
 - 횡단보도의 신호 대기시간은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고, 시각·청각적인 신호 제공
- 서비스는 노인이 살고 있는 곳,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예: 건물 지상층)에 집중 설치하고, 노인을 위한 고객서비스(예: 노인 대상 안내데스크) 제공
- 건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는 엘리베이터, 램프, 안내판, 계단 손잡이, 적절한 높이의 계단, 미끄럼방지 바닥재, 편안한 휴식공간과 충분한 공중화장실 제공
-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편리한 곳에 설치해 찾기 쉽게 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 런던시의 'Old People Strategy'

- 런던시는 노인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과 런던 시 전체의 건강과 복리 향상을 도모
- 노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

런던시장의 'Old People Strategy 2006'

- 전략 1 런던시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 해소
- 전략 2 모든 노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보장
- 전략 3 노인의 고용 장벽 해소
- 전략 4 런던시는 정책 및 실천과제를 통해 노인평등을 선도
- 전략 5 런던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증대를 위한 지원
- 전략 6. 지역사회 서비스에 노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협력망 구축
- 전략 7 노인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익창출을 위한 기회 보장
- 전략 8 연금수령자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전략10 노인을 위한 런던 대중교통의 접근성, 안정성, 비용 적절성 등 개선안 마련
- 전략11 노인의 안전과 범죄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전략12 노인이 신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략13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및 건강관련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
- 전략14 새로운 주택정책 및 투자
- 전략15 도시개발과 환경전략 실행에 노인의 욕구를 반영

□ 미국 미네소타주의 'Blueprint for 2010'

- 고령화로 인한 변화(Age Wave)에 준비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노인, 전문가, 공무원, 민간 및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1200여 개의 이슈를 채택

- 일과 은퇴에 대한 재인식, 수발자 지원, 지역환경 조성, 장기요양, 기술활용 등 5개 주제영역에 대하여 전략과 실행안(Action Step)을 도출

미네소나 Blueprint for 2010의 action step 사례

- 제2주제영역: 모든 연령의 수발자 지원 -

- 전략 1 미네소타의 모든 직장에서 노인수발 지원을 제공
 - 직장기반의 노인수발지원서비스를 확대(예: 직장 내 수발자 모임, 케어코디네이터 연계, 병가를 쓸 수 있는 가족범위 확장 등)
 - Family Medical Leave Act(FMLA)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장
 - 취업 중인 수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 전략 2 다양한 형태의 수발자 지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홍보
 - 지역 내 수발자를 위한 원스톱지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설치
 -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수발자 친화적으로 설계
 - 수발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치'로 훈련받은 전문인력을 확대
 - 수발자와 수발자의 기능,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
- 전략 3 가족이 없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 종교단체 네트워크를 활성화
 - 혼자 사는 노인들과 이웃,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간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 독거노인에게 세대 간 혹은 동료 간 지원과 연대감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예: Golden Girls Home)
- 전략 4 육아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조부모의 접근성 보장
 - 장애가 있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탁모(Foster Care Provider)로 지정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육아지원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정
 - 공공 및 민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조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점검

□ 인디애나폴리스의 'Building A Senior-Friendly Indianapolis' 프로젝트

- Advant Age Initiative의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된 10개 도시 중 하나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4개 기본요소에 대해 우선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도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원칙(Core Principles)

- 노년기는 기회와 자기실현, 기여의 시기
- 모든 노인에게 최대한의 독립성 유지를 지원
- 모든 노인에게 의식주·이동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보장
- 노인에게 바람직한 환경은 곧 지역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환경

<표 1> Building a Senior-Friendly Indianapolis 프로젝트의 고령친화도시 전략

기본목표	priority	실행전략(Action Strategies)
기본욕구 충족	주택개조	주택개조 프로그램 확대
	주거비부담 최소화	다양한 형태의 주거옵션
독립성 최대화	수발자 지원	가족 수발자 교육, 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역기반의 자원봉사네트워크(예: 종교단체) 확장 가족 수발자에 대한 세제혜택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교통서비스	교통수단 간의 연계 자원봉사자 활용 걸어다니기 좋은 거리환경 설계 노인운전자 안전 대책
신체적·정신적 건강 최적화	노인건강프로그램 확대	Greenway Trails(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개발을 통해 노인 대상의 운동, 여가활동,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역 기반의 운동프로그램 확대
	건강검진을 향상	
사회참여 시민참여	완화치료 확대	고통과 증상완화서비스와 호스피스서비스 확대
	정보접근성 향상	노인 네트워크인 "Indy Creative Aging"을 통한 통합적 정보제공
	노인 정기적인 접촉	일일 안부전화 Gatekeeper 프로그램

III. 고령친화적 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

노인이 존중받고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고령친화적 도시’ 실현

- 노인복지영역에 제한되어 있던 서울시의 고령화 정책을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략으로 전환
 - 현재 고령화 정책은 노약자, 요보호 노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분화되어 노인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서비스는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종합복지관 등으로 매우 제한적
 - 장기요양보호나 복지서비스는 물론 주거와 교통, 도시설계, 건강의료, 문화, 교육, 안전과 시민참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할 필요
 -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서울시민의 성공적인 노화, 활동적인 노화를 보장
-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역동적으로 생활하고,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시설과 서비스가 지원되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정책목표로 설정
 - 고령친화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의 기초자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 서울시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
 - 소비자, 고용인, 자원봉사자, 교사, 수발자,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

□ 주요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전략
서울의 고령친화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진단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개발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개조를 통해 노인주택의 안전성·편리성 확보 - 주거와 지역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노인의 기여를 적극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공식적인 채널 설치 - 고령화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 제공

서울의 고령친화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매뉴얼 개발

□ 노인들의 욕구와 서비스 실태 확인,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의 고령친화도 진단 및 점검을 우선 실시

- 노인, 지역사회 지도자, 공무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지역사회 간담회 등 다양한 질적·양적방법을 활용
 - 노인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요인과 노인이 가진 자원 등에 대한 점검

□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

- 서울의 자원과 문화 역사 등에 기초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을 도출하여, 고령친화도시 서울 만들기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행 매뉴얼을 마련
 - 기본적인 생활보장, 물리적 도시환경, 취업, 사회참여, 건강의료서비스, 지역복지서비스, 교육, 안전 등 고령친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본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지침 제공

- 서울시 노인의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사회활동, 여가·체육활동 참여의 기회와 시설 확대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을 위해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현 거주지에서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
 - 노인의 90% 정도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노인주택 개조 지원제도가 없으므로, 우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개조사업의 토대를 마련
 - 신체적 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주택 개조 및 집수리 사업 확대와 신규 건설주택의 고령친화적 설계를 확대 적용
 -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과 주택 개조 필요성에 대한 노인대상 교육도 병행

Aging in Place의 장애요인

- 적절한 주거옵션 부족
- 산책,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신체활동의 기회 부족
- 적절한 이동수단(교통) 부족
- 활용가능한 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
- 의미있는 자원봉사기회 부족

- 노화에 따른 기능 쇠퇴를 보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제공
 -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이는 전체 노인의 3% 정도에만 한정되고 있어 일반주택 거주 노인 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 역할을 강화

- 가사지원 및 간병, 외출지원, 식사 및 영양관리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여가, 교육, 문화 등 사회참여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연계
-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및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원스톱지원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도 보장
- 1구 1지역복지센터 체제를 구축하고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노인의 기여를 적극 유도

- 고령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노인의 의견과 욕구, 경험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 설치
- 다양한 사회경험과 배경을 가진 노인이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 건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은퇴자 그룹,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사회지도자로 노인인력을 양성, 훈련
- 노인전략그룹 구성을 통해 노인의 욕구와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

런던 노인전략그룹(The London Older People Strategies Group, LOPSG)

- 런던시의 200여 개 노인단체가 연합하여 시장의 핵심적인 자문그룹으로 운영

미국 백악관 노인회의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 10년 주기로 개최되어 고령화 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노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 노인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
 - 노인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미국의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나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같이 지역 내 자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노후생활에 대한 가이드북 배포로 효과적인 정보 제공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7

sunjakm@sdi.re.kr